



인물탐방 남구문화원 조정미 부원장

생활속에 녹아드는 차문화 몸소 실천



조정미 부원장이 즉석에서 다도시연을 통해 우리차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다.

동양학 속에서 막 걸여 나온 듯한 그녀의 첫인상은 그랬다. 흰 무명저고리, 보랏빛 치마를 입은 단아한 모습은 향기로운 차 그 자체였다. 조정미(51·용호동) 남구문화원 부원장이다. 전통차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조 부원장의 행보는 끝이 없다. 동서대학에서 '전통 문화와 생활'을 강의하고 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차어울림행사를 주관한다. 10월 말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통차 팔찌 보이기 행사 준비를 위해 통분서주하고 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가진 조 부원장은 98년부터 본격적인 차 공부를 하게 됐다. 그녀에게 있어 차는 생활의 일부다. '차'가 어떤 의미냐고 묻는

것은 우문일 따름. 차에 대해 공부할수록 나눔에 대한 욕망이 컸다. 차문화협회 부산지부장, 부산전통문화원장 등을 하면서 전통문화 제대로 알리기에 힘써 왔다. 문화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 여기며 천연염색, 국악, 한지공예, 서예 등 각 분야별로 교육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사비를 들여 시작했다고.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교육자 집안에서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역시 부산출신인 최영국(52)씨를 만나 차문화를 즐기는 시막의 가풍에 동화되었다고 한다. 그저 좋아서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소통이고 어울림이다. 이웃과의 나눔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어우러지고 싶어 차를 마시고, 차를 우려내

나눔과 어울림의 차(茶) 우수성 알리기 '동분서주' 역사관 심어주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꿈

며 기다리는 잠시 멈춤의 미학. 차 한 잔에는 어울림과 나눔, 쉬어감의 문화가 녹아 있다. 차가 생활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장맞은 대바구니 속에서 뽕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는 금방 훌륭한 다탁으로 변신했다. 하얀 보자기 위에 차 도구가 놓이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 건넌터 한 잔의 국화차. 찻잔을 두 손으로 쥐고 들어 올려 왼손에 얹고 오른손으로 감싸 한 모금 마시니 입속에선 어느새 한 송이 국화가 피고 온 몸에는 은은한 향이 퍼지는 듯하다. 격식 없이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차문화를 몸소 펼쳐보인 것. 미국에 가 있는 두 아들도 차문화를 전파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생활 속의 곳곳이 차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보자기, 컵 하나만 있으면... 여러 번 우려먹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찻잎은 버릴게 하나도 없다. 모아서 천연염색을 하기도 하고 큰 잎은 나뭇을 해먹어도 된다. 고등어조림을 할 때 넣으면 지방과 냄새를 제거한다고. 냉장고 탈취제로도 쓰이고 무좀에는 녹차 우리 물이 특효란다. 차는 살균작용 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한정미 기자

이런 모임 어때요 - 풋살 FC 부산 갈매기팀

미니축구 재미에 푹 빠졌어요



백운포체육공원 풋살경기장에 모인 회원들이 경기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풋살팀 1호 동호회원만 150명 매주 목요일 백운포서 친선경기

남구 백운포체육공원은 지난해 11월 풋살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풋살을 즐기려는 동호회원들의 열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남구의 풋살 동호회 1호는 'FC 부산 갈매기팀'으로 올 1월 처음 결성돼 현재 40여명의 선수를 포함한 15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임 창단은 남구가 지난해 11월 조영 시설을 갖춘 2개의 풋살경기장

을 완공하면서 시작됐다. 최신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갈매기팀은 매주 목요일 저녁 친선경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회의 단합을 다지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층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풋살 동호회가 점차적으로 늘어 현재 남구에는 10여개의 팀이 구성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풋살은 1930년 우루과이의 후안 카를로스 세리아나가 창안한 구기 종목으로 남미와 브라질 등지에서 성행했던 '미니 축구'라 할 수 있

다. 축구장 크기의 3분의 1 정도인 길이25~42m 폭15~25m의 경기장에 골대도 폭 3m 높이 2m로 작으며 바운드가 작은 공을 사용한다. 쉽게 말해 농구 경기장 정도 크기의 규격에 5인제 축구 경기인 풋살은 FIFA가 공식 인증한 경기이며 세계적으로 2,500만 이상의 활동인구를 갖고 있다. 허정부 전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의 민첩성과 패싱 능력을 높이기 위해 풋살을 활용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현재 갈매기팀은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 그리고 정교한 패스를 요구하는 풋살을 즐기며 시민위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수 회장은 "풋살경기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스포츠일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풋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갈매기팀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풋살의 재미를 함께 느낄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11-830-6617

주영란 기자

우리구 이사람

나이 들수록 컴퓨터 더 익혀야

장·노년층 정보화교육 전도사 남구실버정보센터 신 용 해 대표



대연5동에 살고 있는 신용해(72)씨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구실버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노인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용해 대표는 이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다. 그가 맡은 강의는 PC종합반과 스위치 기초반으로 연령층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특유의 자상함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컴맹 탈출을 돕고 있다. 사실 그는 20년 전 국내에 컴퓨터가 도입되던 시절부터 컴퓨터와 인연을 맺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정보화 전문 강사다. 실버강사 1호인 그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대상 교육 강사로도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05년 개소한 남구실버정보센터 대표로 부임해 지금까지 노년층 정보화 증진사업에 헌신해 오고 있다. 신 대표는 센터를 소개하며 "2005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1,8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남구지역 정보화교육의 메카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장 시설 환경 개선과 신행 컴퓨터 도입이 절실하다"며 구와 독지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또 "컴퓨터를 모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010-3422-6442

척추장애로 구두땀이와 인연 가족·건강 지켜준 천직에 감사



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일을 할 수 없었다. 가게는 힘들고 몸은 낯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척추결핵성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구두수선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오전 원 벌이 밖에 되지 않아 낙담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차 자리를 잡게 됐다. 구두를 닦고 고쳐면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위안을 삼았다. 시간은 화살보다 빠르게 흘러 두 딸

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할 만큼 성장했다. 앞이 보이지 않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주름진 미소를 짓는 그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경오씨는 얼마 전 위 수술을 받았다. 5백만원이 넘는 수술비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해결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구두수선공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미련과 후회 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남들이 하찮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병든 몸을 나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해결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두수선공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직업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동천 경관을 바라보고 좋은 이웃들과 정담을 나눌 수 있어 더더욱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일 많이 생길거라 믿고 있습니다." 김정희 기자

남구생활체육회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교 실		요 일	시 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기간	접수기간		
생활체육 게이트볼교실		월~금	14:00~16:00	70명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이기대 일구)	9. 01 ~ 11. 30			
수 영	A반	월·수·금	12:00~12:50	35명	용호레포츠 (용호3동 소재)	2010. 10. 25 ~ 10. 31			
	B반		13:00~13:50	35명					
	C반		14:00~14:50	35명					
	D반		12:00~12:50	35명					
	E반		13:00~13:50	35명					
	F반		12:00~12:50	30명					
G반	13:00~13:50	30명	녹색스포츠스 (대연3동 소재)						
탁 구	A반	월·수·금	10:00~11:30	15명	유엔탁구장			2010. 11. 01 ~ 11. 30	
	B반		11:30~13:00	15명	유엔로터리				
테니스	초급	월·화	09:30~11:00	20명	백운포테니스장				
	중급	목·금	11:00~12:30	15명	(용호동 버스종점)				
요 가	A반	월·수·금	09:00~10:00	25명	남구생활체육회 교육관 (대연6동 소재) 바카스포츠포점 2층				
	B반		10:00~11:00	25명					
	C반		11:00~12:00	25명					
	D반		15:00~16:00	25명					
	E반	화·목	09:30~10:30	25명					
	F반		13:00~14:00	25명					
	저녁반	월·수·금	18:30~19:30	25명					
		화·목	19:00~20:00	25명					
골 프	A반	화·목	09:00~10:30	20명	대연골프프라자 (대연4동 유엔로터리소재)				
	B반		10:30~12:00	20명					
	C반		13:00~14:30	20명					
	D반		19:00~20:30	20명					
볼 링	월·수·금	10:30~12:00	35명	우일볼링장 (문현1동 소재)					

※ 접수처 : 남구생활체육회 ☎644-7330, 607-6389

친절과 미소 마음에 새겨



오류도 친절지기 용호1동 박선영씨



웃는 얼굴 상냥한 말씨로 민원인에 친근감 심어줘

내한다고 염서를 보내왔다. 정미영씨는 서류발급을 위해 방문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까지 친절히 챙겨줘서 매우 감사

하고요. 또 한분의 민원인은 친절한 말씨, 미소 띤 얼굴, 여색하고 불려한 점을 전혀 못 느끼고 친근감 있어 좋았으며 민원행정 발전에 도움이 격려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영씨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웹디자인 일을 하다가 2009년 10월에 공직에 첫발을 디뎠다. 사회초년생은 아니지만 공직생활인지만 더욱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짧은 공직생활 중에 별로 헤들린 것도 없는데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 힘들었던 때는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아는데도 억지 쓰는 분이 있다며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동기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요가를 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날려버린다고 한다. 업무 중에도 사무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즐겁게 근무한다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을 돌린다. 최정순 기자